

책의 날, 책의 祝祭

책은 마음의 발을 갈아 생각의 깊이를 더한다

10월 11일은 '책의 날'. 이날은 736년 전 미증유의 外侵에 대응하여 종교적 發願으로써 고려8만대장경을 완성, 한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했던 날이다.

올해로 창립 40돌을 맞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역사적인 날을 가려 '책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책의 고마움을 일깨우는 한편 책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祝祭의 날로 삼기로 했다.

출협은 올해 첫 '책의 날'을 기념해 '책의 날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특별기획전시회와 서울시내 대형서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도서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記念像 제막식을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고려8만대장경 經板을 간직하고 있는 海印寺측도 '책의 날' 제정을 기념해 '고려대장경에 관한 학술발표회'와 고려대장경이 강화도로부터 해인사로 옮겨진 경로를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6, 8, 42면에)

'책의 날' 어떻게 정해졌나

출판계에서 1년중 특정한 어느 한 날을 가려 '책의 날'로 삼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작년 12월 3일. 이날 출협 상무이사회는 87년의 출협 창립 4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책의 날'을 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상무이사회의 이같은 결의는 같은 날 열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정식 의안으로 받아들여졌고, 12월 28일에는 출판계·도서관계·서지학계·언론계·학계 인사 11명으로 '책의 날' 제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책의 날' 제정사업은 올해 구체화되어 활발히 추진됐다. 자문위원회는 2월 9일 모임

을 갖고, 그동안 각 위원들이 여러모로 조사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보일을 추천했다.

● 10월11일. 고려대장경이 완성된 날(1251년 음 9월 25일)이다. 고려대장경은 전후 2차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제1차의 것(초조대장경 및 속장경)은 고종 19년(1232) 몽고군의 침입 때 불타버리고 지금 해인사에 남아있는 것은 2차로 만든 것으로 고종 23년(1236)에서 동 38년(1251)까지 16년이 걸렸다. 이 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板本이 81,445장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10월 12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베풀어진 '책의 날' 선포 기념식 광경.

● 4월11일. 고려시대 국립대학인 國子監에 書籍舖를 설치한 날(1101년 음 3월11일)이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관서인 秘書省이 서적을 수장하는 도서관의 일과 책을 인쇄하는 관용 출판부의 일을 맡았었는데, 숙종 6년(1101)에는 비서성의 板本들이 쌓여져 있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여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비서성에 있던 책들을 그리고 옮기고 서적포로 하여 금 인쇄업무를 맡아 하게 했다. 서적포는 오늘의 대학출판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영국 옥스포드대학 출판부(1478년 창설)보다 377년이다 앞선다.

● 3월11일.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를 주조하기 위해 鑄字所를 설치하고 활자주조를 시작한 날(1403년 음2월19일)이다. 개국초 태종은 儒生들이 읽을 책을 널리 인쇄하기 위해 즉위 3년인 계미년(1403) 2월13일 주조소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궁중과 신하들로부터 銅鐵을 주렴해서 그달 19일부터 주조에 착수, 몇달 사이에 수십만자의 활자를 만들었다. 이때 주조한 활자를 그해의 연호를 따서 癸未字라 했다.

● 6월26일. 유명한 「龍飛御天歌」를 처음으로 출판한 날(1447년 음 5월5일)이다. 세종은 한글 창제 후 한글의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한글로 시문을 짓게 했는데, 이때 권계, 정인지 등이 조선왕조의 창업을 중국 고사에 비유 찬송한 용비어천가를 지어바쳤다. 전문 125章의 한글로 된 노래에 한문시를 나란히 적고 여기다 성삼문·박팽년·신숙주 등이 한문으로 자세한 주석을 붙였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세종 27년(1445)이었다.

● 10월31일. 조선말기의 출판기관인 博文局이 설치된 날(1883년)이다. 고종 20년(1883) 정부는 새로운 문물의 수입에 따라 새로운 서적들을 간행할 필요를 느끼고 박문국을 신설, 인쇄에 필요한鉛 활자와 인쇄시설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박문국은 1885년에 폐쇄되기까지

당초 유력한 '책의 날' 후보로는

고려대장경이 완성된

10월11일 외에 조선 개국초에

금속활자를 주조하기

시작한 3월11일,

「용비어천가」를 처음으로 출판한

6월26일 등 여러 날이 꼽혔다.

출협은 사회각계의 여론을 집약,

그중 10월11일을 '책의 날'로

선정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한문)와 그 후신인 漢城周報(국한문 혼용)를 발간했다.

이밖에 1884년 최초의 민간출판기구인 廣印社가 문을 연 3월19일, 1947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창립된 3월15일, 1971년 유네스코가 圖書憲章을 선포한 10월22일 등도 후보일에 올랐다.

출협은 이들 여러 날에 대해 보다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 각계각층의 인사 1,646명(단체 포함)에게 돌려 널리 의견을 구했다. 그 결과 599명의 응답자 중 55%(328명)가 고려대장경 완성일인 10월11일을, 41%(245명)가 고려시대 서적포 설치일인 4월11일을 '책의 날'로 찬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월11일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없지 않았다. 고려대장경 완성일은 특정 종교와 관계가 깊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10월이 '문화의 달'이어서 가뜰이나 행사가 많은 터에 굳이 10월을 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출협은 각계의 여론조사에서 집약된 10월 11일과 4월11일 양일중에서 택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최종 결정하는 출협 이사회(3월10일)는 양쪽을 각각 지지하는 의견이 백중, 맞선 끝에 마침내 무기명투표로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책의 문화’ 한 자리에

책의 의미 되새기는 記念像

‘책은 마음의 발을 갈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슬기의 높이를 돋군다.’—이렇게 시작되는 ‘책의 날을 받드는 글’(전문 별항)은 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엄한 憲章이다. 이 글은 문학평론가 金炳翼씨가 초안하고 서울대 金泰吉교수가 다듬었고, 책의 날 제정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10월12일의 ‘책의 날’선포식에서 낭독된 이 글은 24일 제막될 ‘책의 날’記念像에도 새겨져, 자칫 지나치기 쉬운 책의 고마움을 일깨워주게 될 것이다.

‘책의 날’기념상은 등근 원형의 받침돌 위에 책이 펼쳐져 있고 그 둘레에 부모와 어린이 일가족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책이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끼치는 관계와 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로 4m, 세로 3.5m, 높이 3m의 이 화강암 및 청동조각상은 조각가 沈貞秀교수(淑大)에 의해 제작되는데, 오는 24일 오전 11시 강남구 서초동의 신축 국립중앙도서관 앞뜰에서 제막된다.

한편 ‘책의 날’제정을 기념하는 특별기획도서전과 연합도서축제가 10월24일~11월2일까지 10일간 교보문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7개 대형서점에서 일제히 열린다.

출판문화 1300년展

출협의 특별기획전으로 교보문고 전시장에 마련되는 ‘한국출판문화 1300년전’에는 세계 最古의 인쇄물로 알려진 「無垢淨光大陀羅尼經」(704~706·목판인쇄·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1980년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간행물 중 출판기획이나 인쇄기술면에서 전기를 이룬 책과 시대별 특징을 잘 드러내는 책 1천여종이 전시된다.

전시는 ① 신라시대~구한말(1910) ② 일제시대(1910~1945.8) ③ 광복이후(1945~1980) 등 3단계로 시대구분된다.

구한말 이전의 자료로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直指心經」(1377/영인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1239 활자초간/목판재간본)등을 비롯, 「重新校正入註附音通鑑外紀」(1427?), 「唐柳先生集」(1440 갑인자), 「楞嚴

經」(1461 을해자),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1461 을해자), 「資治通鑑綱目」(1485 갑인자) 등등 조선초기의 활자본들이 대거 선을 보인다. 특히 「...通鑑外紀」는 이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계미자 및 경자자의 활자인쇄본이다. 이 책은 세종 4년(1422)에 중국에서 간행한 것을 들여와 우리 활자로 인쇄한 것인데, 서문만이 계미자로 인쇄되었을 뿐 본문은 경자자로 되어 있어 이채롭다. 이는 종래 계미자를 녹여서 경자자를 주조했다는 「慵齋叢話」에서 비롯된 說을 뒤엎을만큼 귀중한 책으로 평가된다. 또 목판본인 「惺惺堂選半山精華」(1446)는 안평대군이 중국의 시문을 모은 책인데, 지금까지는 일본의 성취당문고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시대 출판물로는 일제시대사 연구에 중요한 조선총독부자료들을 비롯, 이광수의 「無情」(1918), 한용운의 「님의 沈黙」(1926)등 한국근대문학사상 기념비적인 작품들의 초간본이 주로 전시된다. 광복이후의 현대출판물로는 총서류, 전집류 등 장르별로 효시를 이룬 도서들이 전시됨으로써 우리 출판문화가 성장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연합도서전, 7개 서점에서 열려

한편 연합도서축제는 서울 시내 7개 주요서점에서 ‘동시다발’로 일제히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색적인 책잔치이다. 즉, 각 서점이 그 지역환경의 특성에 알맞는 주제를 골라 교양도서·어린이도서·사회과학도서·종교도서 등 특정분야의 신간도서들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도서축제는 지금까지 도시에 치우쳐 열렸던 도서전을 부도심에까지 광역화함으로써 독자들의 책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서점인들이 ‘책의 날’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의 날’이 출판계만이 아니라 전 서점계의 축제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연합도서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및 전시도서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위치·대표전화번호)

책의 날을 받드는 글

책은 마음의 발을 갈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슬기의 높이를 돋군다.

우리는 책으로 좁은 울을 넘어서 오랜 때와 먼 곳을 보고
뛰어난 삶과 만나며 올바른 길을 찾는다.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우리의 것을 지키며 아름다움을
가꾸어 온 것은 책을 사랑하여 그 가르침을 몸으로 살아온
얼을 이어 받음으로써이며, 우리나라가 이제 밝은 빛을
쫓아 먼 앞날로 바르게 나아갈 것을 믿음은 우리 모두
책에 대한 바람을 탄탄히 다지고 그 보람을 옹기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책의 가없는 뜻을 알리고 크나 큰 고마움을
기리도록 우리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이 나온
시월 열 하룻날을 책의 날로 받든다.

일천 구백 팔십 칠년

대한출판문화협회

- 교보문고(광화문 교보빌딩 지하·730-7891)='87 신간도서 특별전
- 국민도서(노랑진 전철역전·812-5553)=교양 및 실용도서 특별전
- 동화서적(강남지하철역·552-6355)=어린이 및 청소년도서 특별전
- 신촌문고(신촌로터리·333-2971)=사회과학도서 특별전
- 을지서적(을지로입구 전철역 내외빌딩 지하·757-8991)=직장인을 위한 도서 특별전
- 종로서적(종로2가·732-2331)=종교도서 특별전
- 중앙도서전시관(광화문 교육회관1층·730-6412)=한국학도서 특별전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 20호분 · 값 1만원
전화문의 : 732-1431~3